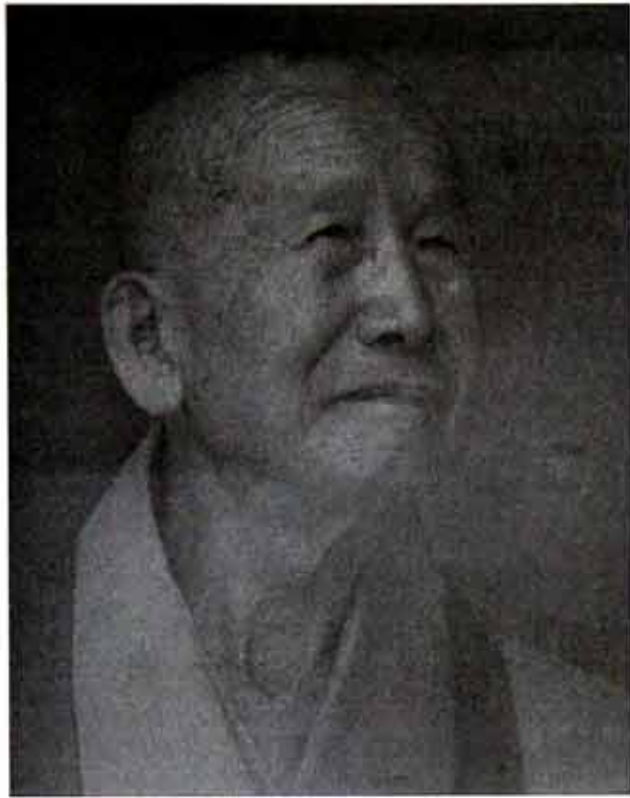


삼매에 든 백학봉의 무진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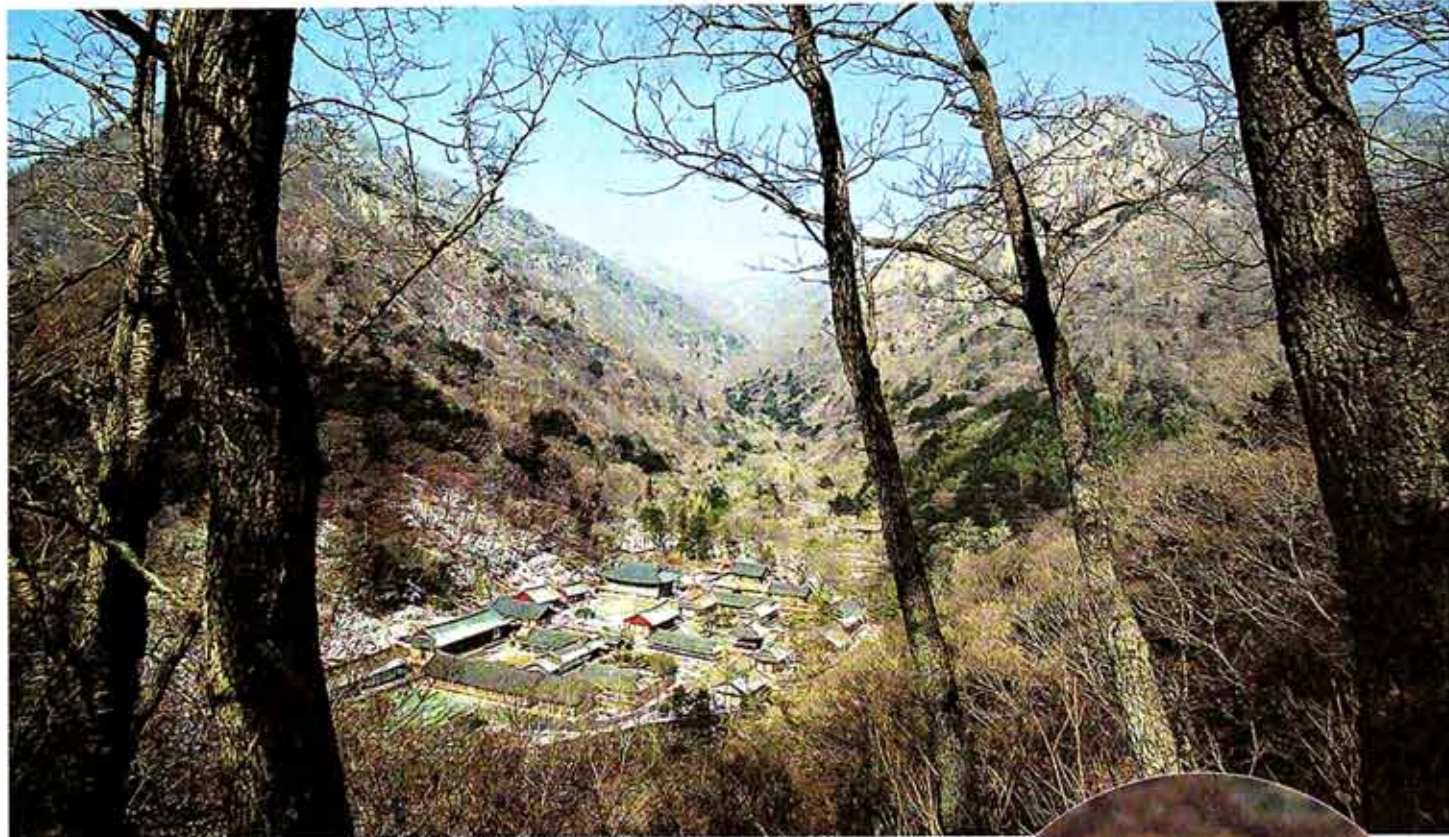


백암산의 얼굴 서용스님

91세 노구불구 '참사람 결사운동' 퍼

고불(古佛)이 다시 나와 짓는 표정이 어려울까? 미소 지은 서용(西翁) 큰스님을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든다.

1912년에 나셨고, 1932년에 민암 스님의 문하에서 불문에 귀의하셨다. 조계종의 5대 종장을 역임하셨고, 1996년부터 고불총림 백암사의 방장으로 계신다. 세수 91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두가 '차별없는 참사람(無位眞人)'이 되게 하고자 '참사람 결사운동'을 펼치시고 있다.



백암산 백암사. 산기슭에 곳곳에 보석처럼 빛나는 암자와 사찰 청량한 기운을 뿜어내는 비자나무 숲을 품고 있다. (위) 대웅전 천장의 목조각 장식(아래)

아직 단장을 하지 않은 백암사 일주문 너머로 백암산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백학봉'을 마주하는 순간, '그래, 젊은 언체와도 좋은 곳이지' 하는 말이 허겁에 맴돕니다. 거기 백학봉이 있어서 절이 자리를 잡았는지, 절집이 들어섬으로써 백학봉이라는 이름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암사의 선종(禪宗)과 백암산의 진면모가 백학봉 하나에 다 담겨 있는 듯합니다.

'한 생명만 깨쳐도 한 생명이 깨진다'는 선가(禪歌)의 금언이 생각납니다. 낱알 생명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와 같음을, 모든 개인

누각입니다. 바람을 메고 먼 길을 걸어온 수행자는 이제 곧 시작될 고행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고, 한나절 저장거리의 피로를 씻어 온 세간 사람들에게는 감춰두었던 시름 한 보따리 풀고 가라는 배려일 테지요. 그 의도가 무엇이든, 절집은 이렇게 멋드러지게 여유를 부립니다.

사잇말이 길었습니다. 하고픈 말인즉, 물의 흐름을 누그러뜨리는 특 위로 놓인 징검다리에 몸을 올려 세워, 낮달처럼 연못에 퍼오른 쌍계루와 백학봉의 품에 안겨보자는 것입니다.

니다. 큰 절을 감싸듯 흘러 내리는 좌우풍의 산줄기를 바라보는 즐거움만으로도 산길을 오를 수고의 몇 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암으로 발길을 옮기면 천연 기념물 제153호인 비자나무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철 푸른 그 청량한 기운에 속진을 씻어보는 것도 산사를 찾는 각별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천진암, 흥련암, 청류암, 청량원과 같은 암자들도 아난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산사의 진경을 열어보입니다. 자연과, 그것을 닮으려는 인간의 매개체로 칠만한 공간은 달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절집에서 선인들의 자취를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건주 여환 스님이나 고려시대의 각진 국사, 조선시대의 권양, 진국, 연담 스님을 비롯하여 근·현세의 백파, 화명, 응성, 인국, 석전, 만암 스님 등 수많은 선지식이 이곳 백암사에서 도업을 이루었음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의 백암사를 있게 한 스님은 만암(1875~1957) 스님입니다. 1917년 폐허가 되다시피한 절을 중창하여 총림의 터전을

다졌습니다. 청류암에 민족교육의 산실인 공성속을 설립했고 1930년에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학교 천신불)를 설립하는 등 최전해가는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운이 푸르게 살아있으니, 백암사 진입로에서 단풍나무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노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암 스님께서 손수 심은 소나무라고 합니다.

이후 6·25의 전란에 또 한 번 시련을 겪었으나 1980년 이래 복원을 시작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서용 큰스님의 회상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청정 수행 기풍을 이

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백암산 백암사

1400년 古刹...천진·흥련·청류암·청량원 보석처럼 빛나

이즈음의 산색은 잿빛 승복 빛깔을 닮아 있습니다. 양극단을 물리친, 흑과 백의 어둠에서 만들어지는 빛발의 내밀한 스펙트럼, 화들짝 놀랄 만큼의 화려함과과는 거리가 멀지만, 죽은 듯이 살아 있는 혹은 살아 있되 죽은 듯한 생명의 근원적인 신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겨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해돋이 스며든 포말이 불에 안길 때의 느낌이 그러할까요. 불마중의 설렘보다 한 발 앞선 매화꽃 물우리, 겨울과 봄 사이에서 악동하는 생명의 포말입니다.

사실 백암사는 새봄이나 늦은 가을에 찾으려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다. '춘(春)백암, 후(後)내장'이라는 말의 유망세에 길들여진 듯도 있었지만, 어느 가을 우연한 곁을에 이끌려 바라본 단풍의 아찔한 붉은 빛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쾌한 기억도 때론 거추장스럽습다. 기차에 몸을 부려 놓고도 백암사 가을 단풍에 대한 아쉬움이 쉬 가시지 않았습다. 하지만 그것이 길들여진 감성이 빛어내는 어설픈 수작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다.

은 인류를 대표함을 이르는 말로 새겨도 좋을 듯합니다. '산천초목이 다 부처'라는 불가의 가르침이 결코 헛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현현장부의 기상으로 삼매에 든 백학봉의 무진 설법입니다. 따라서 백암사에서 먼저 백학봉의 품에 안겨 보는 것이 제대로 된 삼매의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백암사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부도' 앞에는 '쌍계루'라는 편액을 단 누각이 있습니다. 은문암 쪽에서 흘러내린 계곡과 천진암 쪽에서 내려온 계곡이 만나 잠시 머물면서 이루는 연못을 완성하기에 딱 좋은

고불총림 백암사.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이기도 합니다. 백제 무왕 33년(632) 여환 스님이 창건한 1400여년 고찰입니다. 이러한 내력의 무게감과 달리 백암사는 소박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서둘러 둘러보고 나면 어디가 어딘지 뒤섞여버리는 큰 절과 달리 느긋하게 둘러보아도 시간에 쫓길 일은 없습니다. 만약 시간이 넉넉하다면 백암산 자락 곳곳에 보석처럼 박힌 암자를 둘러볼 일입니다.

고려 때 각진 스님이 창건한 은문암은 백암사 암자 중 최고의 전망을 안겨 줍니다. 안거 중이 아니라면 오는 발길을 막지 않을

法輪藏
문장 (法輪藏, Dharma Chakra)이란 무엇인가?
법륜장(法輪藏)은 인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불교의 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불교의 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불교의 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실용신안 20-2001-0029858 ●의 장 30-2001-14622호 ●상 표 40-2001-19831호

경전신앙의 상징, 법륜장 (담마차크라)

경전신앙의 상징, 법륜장(운장대)을 한국불교 정서에 맞게 제작하여 사찰에 봉안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법륜장을 돌려도 팔만대장경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효과를 내는 법륜장을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륜장은 티벳이나 몽골에서는 라마승과 목수가 택일을 하여 나무를 베고 기도하고 주문을 외면서 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찍이 운장대라고 하여 예천 용문사 대장전에 2개가 봉안되어있으며, 고려 충렬왕 때 국태민안을 위해 법륜장(운장대)를 돌린 의식을 봉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령 1백년이 넘는 인도네시아산 알마시카 나무로서 둘레가 5M 지름이 2m가 넘는 원목을 사용하여 문화재 목공장이 제작하였습니다.
신비의 영험있는 티벳 대장경 간주르 108권을 티벳 라싸에서 직접 이운하여 법륜장에 모셨습니다.
※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며 안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장
정 병 옥(선업)

대표이사
정 광 무(법륜)
(전화 가능보유자 14622호)

본 사: 대구광역시 검사동 990-198 청운빌딩 5층
전화: 053-986-9200-2, 팩스: 053-986-9202
아간 011-553-3004
서울지사: 서울중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602호(백운동고대내)
전화 (02)741-5210 핸드폰 011-506-0040

http://www.담마차크라.com
www.법륜장.com
www.운장대.com
e-mail dharmachakra@hanmail.net

법륜장각(法輪藏閣)

법륜장(法輪藏, Dharma Chakra Tripitaka)란 무엇인가?
법륜장, 경륜 또는 운장대(法輪藏)는 인도나 티벳 등 불교에서 널리 경전신앙과 업장(業障)소멸 학업성취 그리고 조상천도등의 의미로 사용되어 온 일종의 불교의 도구이다. 불교의 도구와 경전신앙이 합쳐져 실현되고 있는 신앙행위 그 자체이다. 법륜장과 경전신앙은 어디까지나 일반신도들을 위하여 생겨난 매우 실용적인 신앙도구라고 하겠다.
특히 티벳 불교와 동남아시아에서 이 법륜장은 일반신도들에게 인기있게 있으며, 팔에가면 누구나 이 법륜장을 돌리므로 신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티벳대장경 간주르 108권을 법륜장에 봉안합니다.